

【우리 시의 향기】

## 시인의 언어 구사

- 정지용의 경우 -

유중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시는 언어로 빛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들어서 아는 것과 실천을 통해 그것을 부단히 재확인하는 것은 사뭇 다르다. 독자 편에서도 시 읽기의 과정에서 그 의미를 부단히 검토하고 음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시 읽기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말의 여러 국면에 대한 세심한 검토요 음미이다. 우리에게 외국 시가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낯말의 여러 국면에 대해서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학성의 핵심을 이른바 ‘낯설게 하기’에서 찾은 이론가들이 있었지만 언어적인 국면에서의 ‘낯설게 하기’도 시의 매력의 하나이다. 그런데 세심하게 꼼꼼히 읽지 않으면 그 점이 간과되기 십상이다. 시 읽기의 재미의 하나가 쓰인 말의 이모저모를 음미하는 즐거움이다.

20세기 한국의 시인 가운데서 우리말의 발굴과 조직과 세련에서 가장 세심하게 공들여서 독자들을 황홀하게 한 최초의 시인은 정지용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언어 구사는 그의 발명이라고 부를 수 있으리만큼 전례 없이 창의적이다. 가령 그의 초기 작품인 <슬픈 기차>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우리들의 기차는 아지랑이 남실거리는 섬나라 봄날 윈 하루를 마도  
로스 파이프로 피우며 간 단 다.

우리들의 기차는 느으릿느으릿 유월소 걸어가듯 걸어 간 단 다.

이 작품의 무대는 일본이고 바닷가를 달리는 완행 열차의 기차 속에 화자가 타고 있다. ‘아지랑이 남실거리는 섬나라’는 일본일 테고 작품 속에는 일본의 내해(內海)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도 나온다. 때는 봄이다. 완행 열차의 더딘 행보를 시인은 ‘유월소 걸어가듯’ 걸어 간다고 쓰고 있다. 누가 보아도 소는 민첩한 동물은 아니다. 동작이 느리고 새김질하는 것도 아주 여유 있어 보인다. 그 소에 6월을 부쳐 시인은 ‘유월소’라 쓰고 있다. 유월소란 말은 큰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정지용이 발명한 말이다. 여기서의 ‘유월’은 ‘오뉴월’의 그 유월이다. 음력 오뉴월은 한창 무더운 여름철이다. 그래서 ‘오뉴월 더위에는 암소 뺨이 물러 빠진다’는 속담도 있다. ‘여자의 악담에는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란 말도 있다. 한더위에 게으른 소가 걸어가듯 한다고 했으니 더디게 가는 완행 열차가 실감된다. ‘유월소’라 씀으로써 음률성에도 도움이 되고 비유의 적정성도 얻고 있다(사실은 음률성에 대한 고려에서 이 말이 발명된 것인지도 모른다). 더디게 가는 실감을 내기 위해서 ‘간 단 다’를 띄어 쓰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대수풀 울타리마다 오염한 관능(官能)과 같은 홍춘(紅椿)이 피맺혀 있다.

마당마다 숨병아리 털이 폭신폭신힌하고,

지붕마다 연기도 아니뵈는 햇별이 타고 있다.

오오, 개인 날씨가, 사랑과 같은 어질머리아, 어질머리아.

----- ‘슬픈 기차’ 중에서

여기 나오는 홍춘(紅椿)은 사실은 일본말이다. 바다가 먼 내륙 지방에서 태어난 정지용은 동백을 알지 못했던 듯 일어를 그대로 도입해 쓰고 있다. 붉

게 핀 동백꽃을 ‘요염한 관능과 같은 흥춘이 피맺혀 있다’고 했는데 아주 신선한 비유이다. ‘관능(官能)’이란 말은 감각 기관의 작용을 가리키는, 역시 일제 한자어인데 특히 성적(性的) 감각에 쓰인다. 궁내에서 일하는 나인들에게 성적 자극을 준다고 해서 가령 붉은 모란꽃 같은 것은 옛날 궁궐에서는 심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 대목은 그런 고사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지붕마다 연기도 아니뵈는 햇별이 타고 있다’는 말할 것도 없이 아지랑이의 낯설게 하기이다. 역시 창의적인 언어 구사여서 명수의 숨씨가 잘 드러난다. ‘어질머리’는 어질병을 가리키는 토박이말인데 시어로서 정지용이 발굴하고 발탁한 것이다. 새빨간 동백꽃, 지붕에서 타고 있는 아지랑이를 보니 문득 어질머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숨병아리’는 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병아리를 가리키는데 숨몽치 같다는 시각 연상에서 나온 말이다. 도시에 사는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한 말이요 점점 사라져가는 말 중의 하나인데 사실적 실감이 배어 있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낱말이 ‘서리까마귀’이다. 노래로 많이 불러 얼마쯤 친숙한 말이 되었다.

하늘에는 석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아.

----- ‘향수’ 중에서

정지용 시의 백미의 하나인 이 작품은 우리말의 보물 창고이기도 하다. ‘석근’은 한동안 추정과 논란이 많았지만 두시언해(杜詩諺解)에도 나오고 ‘성근’이란 뜻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 나오는 ‘서리까마귀’에 대해서도 그 내력을 찾아서 이백의 시에 나오는 ‘霜鳥’에서 연원을 찾는 견해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서리병아리’란 말이 있다. 이른 가을에 깡 병아리를 가리키는데 얼마쯤 추위를 타는 듯하다고 해서 맥없이 보이고 추레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숨병아리를 아는 시인이 서리병아리를 몰랐을 리 없다. 서리병아리에서 자연스레 서리카마귀란 말이 떠올랐을 것이다. 아마도 음률상의 배려와 계절을 감안해서 서리카마귀란 말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유월소와 함께 정지용의 창의적 조어라고 생각한다. ‘우지짓다’는 새가 울며 지저귄다는 뜻의 ‘우짓다’의 옛말인 ‘우지지다’의 변형이다. 역시 음률성의 고려에서 골라 썼을 공산이 크다. ‘우짓다’를 창의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를 우리는 동시에 발견한다.

먼산에 진달래  
울긋불긋 피었고

보리밭 종달새  
우지우지 노래하면

아득한 저 산 너머  
고향집 그리워라

버들피리 소리 나는  
고향집 그리워라.

----- 윤복진, ‘그리운 고향’ 전문

광복 직후 외국 가곡에 붙여서 많이 노래했던 동요이다. 작사자가 월북했기 때문에 그후 역시 윤복진 작사의 ‘물새 발자욱’과 함께 금지곡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위의 동시에 ‘우지우지’는 ‘우짓다’의 변형이겠는데 작사자는 혹 의성음으로 적었는지도 모른다. 의성음으로는 정지용의 것이 한결 근사해 보인다.

삼동 내 얼었다 나온 나를  
종달새 지리 지리 지리리...

왜 저리 놀러대누.

어머니없이 자란 나를  
종달새 지리 지리 지리리...

왜 저리 놀러대누.

해바른 봄날 한종일두고  
모래톱에서 나 홀로 놀자.

----- 정지용, '종달새', 전문

의성음이라고는 하지만 언어 일반의 경우에 기표(記標, signifiant)와 기의(記意, signifié)의 관계가 자의적인 것이듯 소리 표기와 실제 소리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우리는 뻐꾹새가 '뻐꾹 뻐꾹' 운다고 하지만 일본인들은 '각꼬 각꼬' 운다고 한다. 영어에서는 cuckoo라 적는데 이름처럼 '쿠쿠우 쿠쿠우' 운다는 것이다.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다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렇긴 하지만 종달새 울음소리를 '지리 지리 지리리'라 한 것은 절묘하고 창의적이다. 종달새의 울음소리로 고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창의적인 의성음 창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정지용이 언어 조탁에 얼마나 힘썼는가 하는 것은 시의 퇴고 과정에 잘 드러난다. 김학동 교수의 저서 <정지용 연구>에는 처음 발표 당시와 시집 수록 당시에 달라진 점을 자상하게 대조해 보여 주고 있어 퇴고 과정에 들인 정성을 짐작하게 한다. 가령 2행시 '겨울'의 경우를 보자.

비사 방울 나리다 누뤼알로 구을러  
한밤중 잉크빛 바다를 건넌다.

이것이 시집에 수록된 전문이다. 1930년 ‘조선지광(朝鮮之光)’에 발표되었을 때는 ‘우박알로 구을너’로 되어 있었다. 우박알을 누뤼알로 고친 것이다. 충청도 지방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우박을 ‘유리’ 또는 ‘누뤼’라 했고 ‘유리 떨어진다’고 흔히 말했다. 한자어인 우박 대신 토박이 사투리를 살린 것이다. 낯선 말 자체가 때로는 시적 효과를 빛낸다. 그러나 누뤼알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뜻이 있다. 유음(流音)으로 된 ‘누뤼알’이란 말이 구을러란 말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 ‘누뤼’는 정지용이 애용해서 세 번인가가 시 속에 나온다.

동해(東海)는 푸른 삽화(插畵)처럼 움직 않고  
누뤼 알이 참벌처럼 옮겨 간다.

----- ‘비로봉’ 중에서

골작에는 흔히  
유성(流星)이 묻힌다.

황혼(黃昏)에  
누뤼가 소란히 싸히기도 하고

꽃도  
귀향 사는 곳,

절터 드렸는데  
바람도 모히지 않고

산(山)그림자 설핏하면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간다.

----- ‘구성동(九城洞)’ 전문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소란히 들릴 정도로 조용하고 시간마저 정지한 듯이 보이는 초역사적 공간이 잠정적 낙원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여기 나오는 사슴은 거북이나 두루미처럼 장수 불로를 상징하는 십장생(十長生)의 하나이다. 노장적 무위(無爲)의 유토피아를 훑쳐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도 ‘우박’이 ‘누뤄’가 됨으로써 비경에 어울리는 비의(秘儀)적 함의마저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향수’에 나오는 ‘함부로 쓴 화살’은 ‘되는데로 쓴 화살’을 고친 것이요 ‘유리창’에 나오는 ‘물 먹은 별’은 ‘물 어린 별’을 고친 것이다. 조그만 차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이다. ‘적정한 자리에 놓인 적정한 말’이야말로 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인데 정지용은 그런 면에서 반듯하게 시범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두고 기교주의라고 빈정대는 견해도 있으나 그런 ‘기교주의’ 없이 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20년대의 수많은 ‘편내용(偏內容) 주의’ 시인들이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시인은 또 표제도 고친 경우가 많다. ‘해협(海峽)’은 ‘해협의 오전이시(午前二時)’를 고친 것이고 ‘태극선(太極扇)’은 ‘태극선에 날리는 꿈’을 고친 것이다. ‘무서운 시계’는 ‘오빠 가시고’를 고친 것이고 ‘지는 해’는 ‘서쪽 하늘’을 고친 것이다. 변개가 개악을 가져오는 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지용의 퇴고 과정을 보며 우리는 그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